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2017년 12월 6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2. 6.(수)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7. 12. 5.(화)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담당과장	김재준 과장(044-203-4080)	담 당 자	송상현 사무관(044-203-4086)

중국발(發) 외투 유치 회복 국면전환 마련을 위해, '제2차 중국계 투자기업-전문가 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200억 달러 ('17.11.29일 기준) 돌파 시 투자 감소세가 확연한 지역인 **"중국발 외국인 투자유치 가속화"**를 위해 올해 4분기에 **2번째 중국계 기업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 중국 (△60.5%), 일본 (+65.1%), 미국 (+11.0%), EU (△0.6%) (11.29 전년동기대비)

【 행사개요 】

* (일시/장소) '17. 12. 6.(수) 08:30~10:30 / 팔레스 호텔 (서울)
* (참가자) 신산업 투자협력 가능성이 높은 旣 투자기업 및 중국계 은행,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관계자, 투자전문기관, 법무·회계법인, 민간연구소, 학계 등 16여명 참석

○ 지난 1차 간담회*는 금융·재무적투자가·은행권 중심인 반면, 이번에는 한국에 **그린필드 투자를 진행한 제조업체**와 **중국 내(內)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민간**의 **업종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 1차 간담회는 旣 투자기업 (4개사), 전문가 (9명) 등이 참석해 11.22(수) 개최

□ 간담회는 **외국인투자 200억 달러 조기 달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의 대한(對韓)**투자 감소세에 적극 대응**하기위해 개최한 것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투자협력모델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뒀다.

○ 전문가들은 여전히 중국내 **한국 브랜드의 인지도와 신뢰도가 굳건**하다는 강점을 활용해야 하며,

* **한국 프리미엄**을 활용,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 재진출**을 위한 **화장품, 식품 등 고급소비재 투자**가 최근 활발

○ **"중국으로의 역진출"**, 또는 **"제3국 공동진출"**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협력모델**의 활용가능성을 제안했다.

□ 산업부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해 11월 **"3년 연속 외국인투자 200억 달러" 조기 달성**에 안주하지 않고,

* "산업부, 외국인직접투자 3년 연속 200억 달러 달성" 보도자료 ('17.11.29)

○ **투자감소세가 확연한 지역**인 **중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지금까지와 **다른 투자협력의 신모델 등을 발굴**해나가기로 했다.

try of Trade,
try and Energy

□ 오늘 참석한 김영삼 무역투자실장은 마무리 말씀에 **"혼자보다는 많은 사람이 머리를 맞대면 어려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을 인용하며 **중국기업과의 투자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 또한, **'18년**에도 주요국 간 투자협력관계가 **한 단계 도약**이 가능토록 **지속적으로 투자모델을 고도화**해 나감과 동시에, **각 전문가들과 네트워킹 기회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송상현 사무관(☎ 044-203-408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